

국내 기독교 발레의 현황분석

이은형(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석사 재학)

이주희(숙명여자대학교 체육학 박사)

국문초록

한국 발레의 시작은 1946년 조선무용예술협회가 조직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전문적인 발레단의 시작은 1960년대의 한국발레단을 시작으로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한국발레는 국내 여러 발레단체와 발레인들로 인해 그 명성을 전 세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발레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기독교 발레의 활동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고되어 지고 있다(한제선: 2014). 선교발레는 전문 발레무용수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발레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발레를 기독교적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는 선교발레의 영역을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조승미 발레단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국립발레단 멤버들의 회심으로 선교발레단들이 활발히 생겨났으며, '선교발레'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실질적인 국내 기독교 발레의 활동 및 현황 등을 보고하기에는 그 자료가 미비하며 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발레단들의 활동 내용 및 레퍼토리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 기독교 발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 기독교발레의 문을 연 조승미 발레단에서부터 그 뒤를 이어 기독교 발레 사역을 한 국내 주요 발레단은 총 7팀이었으며 이 중 지금까지 기독교발레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는 '하사딴 선교발레단', '이화발레앙상블', '프뉴마선교발레단'이었다. 이들은 교회 내 예배사역과 기독교 발레를 필요로 국내외의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화발레앙상블과 프뉴마선교발레단은 단체가 갖고 있는 전막형식의 레퍼토리('메시아', '新비아들로로사' 등)를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기독교 발레단들의 공연 작품들은 주로 예배를 위한 무용으로 단막형식의 짧은 레퍼토리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막형식을 갖춘 무용단은 조승미 발레단(삼손과 데릴라, 꿈과 믿음의 사람 요셉, 에스터), 이화발레앙상블(메시아), 프뉴마선교발레단(新비아들로로사)가 있었다.

셋째, 과거에는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과 같은 대극장에서 종교적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공연되었으나 현재는 국내의 공연극장 조건상 종교적 내용에 해당하는 공연은 공연될 수 없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기독교 발레 작품의 대극장 공연 횟수는 감소하였으며 점점 예배무용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었다.

넷째, 국내 기독교 발레 단체들의 지속적인 후세대 계승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단체들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황분석에 따라 추후 국내 기독교 발레의 활동이 중단된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여 기독교 발레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독교 창작 발레 레퍼토리의 꾸준한 개발 및 창작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용은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술의 종류 중 하나이다. 무용의 시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고대 종교의식으로부터 기원하여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의식주의 발전, 문자의 계발 및 프로시니엄 무대의 등장 등으로 인간의 환경이 점차 변화하면서 무용의 의미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일상생활을 위한 움직임으로서의 무용이 아닌 보고 즐기는 문화 예술로서의 무용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수단으로서도 자리하게 되었다.

발레는 이러한 무용예술의 한 분야이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발레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전문적인 발레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발레인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발레하면 떠오르는 토슈즈, 발레의상, 발레소품 등은 일반인들에게 발레에 대한 환상과 꿈을 안겨주며 문화예술로서의 발레뿐만이 아닌 산업 콘텐츠로서의 발레로도 자리매김 하였다.

한국 발레의 시작은 1946년 조선무용예술협회가 조직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전문적인 발레단의 시작은 1960년대의 한국발레단을 시작으로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한국발레는 국내 여러 발레단체와 발레인들로 인해 그 명성을 전 세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매년 세계적으로 열리는 발레 대회에서는 한국대표들이 입상소식을 안겨주고 있으며, 무용계의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에는 역대 아시아 수상자에 한국인 세 사람(강수진, 김주원, 김기민)의 이름이 올라있으며 2017년 현재에도 3명의 한국인 무용수가 수상후보에 올라있을 만큼 세계적인 발레 강대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예술은 인간이 상실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한다(노현애: 2003) 발레는 춤을 추는 행위 자체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으며, 춤의 특성상 다양한 동작 및 테크닉을 통해 복음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범위와 효과가 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발레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기독교 발레의 활동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고되어 지고 있다(한계선: 2014). 선교발레는 전문 발레무용수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발레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발레를 기독교적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는 선교발레의 영역을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조승미 발레단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국립발레단 멤버들의 회심으로 선교발레단들이 활발히 생겨났으며, '선교발레'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실질적인 국내 기독교 발레의 활동 및 현황 등을 보고하기에는 그 자료가 미비하며 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발레단들의 활동 내용 및 레퍼토리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 기독교 발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발레의 역사

발레 역사의 유례를 보면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에서 일어나 프랑스 궁중발레, 계몽주의시대의 발레, 그 후의 20세기에 들어가 발레 뤼스, 그리고 제2차 대전 이후 현대발레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레(Ballet)란 용어는 이탈리아어의 '춤추다'라는 뜻의 '발라르(ballare)'와 무도장에서 추어지는 춤을 일컫는 '발로(Ballo)'에서 유래되었지만 '발로(Ballo)'의 애칭인 '발레띠(balletti)'가 발레의 직접적인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발레는 이태리의 궁중연회에서 탄생하였다. 이탈리아의 발레는 프랑스 앙리 2세의 왕비로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프랑스로 건너가면서 프랑스로 가게 된다. 그녀는 1581년 프랑스궁정에서 최초로 공식발레를 완성시켜 공연하였는데 이 작품의 공연자는 모두 아마추어 남성무용수로 초기 발레는 여성발레가 아닌 남성발레라는 것과 궁정발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형태의 궁정발레는 정치적, 절대적 왕권의 내용을 주로 내포하고 있었다. 발레를 체계적으로 확립한 사람은 발레를 사랑한 왕, 루이 14세이다. 그는 1661년 왕실음악무용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발레의 용어를 정리하고 발레테크닉의 개발과 함께 발레를 학문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힘썼다. 왕실무용학교가 생기면서 아마추어 발레에서 직업무용수를 양성한 프로발레 형태로 변하게 되었고 궁정 무도회장 형태의 발레를 극장형태의 무대로 발전시켰다. 왕실무용학교에서의 교육으로 직업무용수들을 배출하면서 발레는 점점 대중화가 되어갔고 남성위주의 발레계에서 1681년 최초의 여성무용수가 등장하게 된다. 1710년에는 무용수들의 치마 길이의 단축으로 다리동작이 다양하게 발전되면서 1728년 발레다리의 5가지 기본동작이 체계화 되었다. 이후 18세기 후반 노베르에 의해 발레는 오늘날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세기 초 유럽전역에는 낭만주의 정신이 유행하면서 발레는 1830년대부터 로맨틱발레로 개화하게 되었다. 낭만주의가 유입되면서 발레는 흰색튀튀를 입고 무대전체를 돌고 흰색으로 채우는 '발레블랑'의 형태로 변화되어갔고 이때, 여성무용수들의 토슈즈가 생겨난 것이다. 토슈즈를 신게 되면서 푸앵트 기법이 생기고 로맨틱 튀튀가 등장하게 된다. 낭만주의의 발레는 이승세계에 대한 갈망이 표현되어 현실세계로 부티의 도피를 추구하였는데 이때의 대표작품이 바로 <라 실피드>이다. 1832년 필리포 탈리오니가 안무한 <라 실피드>가 초연되면서 발레 역사상 여성무용수들의 전성시대가 찾아온다. 낭만주의 발레는 1841년 <지젤>이 파리오페라단에서 초연 되면서 절정을 이루었으나, 19중반부터 말까지 서유럽의 발레는 극히 저하 되어 대중들에게 관심을 잃게 된다. 그 후 유럽의 뛰어난 무용가들이 러시아로 건너가 활동하게 되면서 1890년대 발레의 중심이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옮겨지게 된다. 러시아로 건너간 발레는 그 곳에서 공연의 대중화와 낭만발레, 고전발레의 형식을 확립하게 된다. 1869년 마린스키 극장의 마리우스 삐띠파는 2인무 형식을 최초로 고안하여 발레의 형식과 규칙을 만들고 무용가들이 서는 자리를 치밀한 계산에 따라 관객들이 보기 좋은 구도를 만드는 등 고전 발레의 형식을 수립하였다. 그는 자신의 보조였던 레프 이바노프와 함께 러시아 발레의 대표적인 '돈키호테',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과 같은 작품을 창조하게 된다. 이후 20세기 발레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에 의한 발레뤼스는 고전발레를 현대예술의 한 형태로 변화시켰다. 그를 통해 러시아 발레는 유럽과 미국까지 널리 전파되게 된다. 그가 안무한 '공기의 정들'같은 작품은 낭만발레를 새롭게 정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세헤라자데'를 통해 이국적인 긴장감을 발레에 도입하기도 했다. 그와 함께 작업한 사람들로 바슬라브 니진스키, 안나 파블로바, 조지 발란신, 미하일 포킨스 등이다. 디아길레프발레단은 그가 사망한 1929년 해체되는데 발레단의 해체

후 그의 무용수들과 안무가들은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전역의 무용단에 합류해 그곳에서 발레 발전의 강한 영향을 미쳤다. 20세기로 들어가면서 디아길레프발레단의 무용가들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러시아 발레는 서구세계로 확장되었다. 이때 조지 발란신의 미국 아메리칸 발레학교 설립으로 뉴욕시티발레단이 현대발레의 새로운 힘을 보여주게 되면서 발레의 현대화가 시작되었다.

이렇듯 발레는 이태리에서 시작되어 프랑스에서 크게 발전할 수 러시아로 건너가 꽃을 피우며 발전해 왔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발레단과 발레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술로 자리매김 하였다.

2. 한국 발레의 역사

한국발레는 신무용을 통해 그 막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신무용 시대를 연 근대무용의 선구자인 이시이 바쿠 를 통해 서구무용이 한국에 들어왔고 이후 배우자, 최승희, 조택원 등 한국의 신무용인들에 의해 서구무용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한국에 발레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17년 혹은 1918년경 헬렌이라는 러시아 소녀가 종로 우미관에서 영화상영 중 막간에 발레의상인 튜튜를 연상케 하는 흰색옷을 입고 지금의 토슈즈와 흡사한 슈즈를 신고 추었던 나비춤을 통해서였다. 이후 1927년 일본인 후지다 시레르와 사카이 시요코의 내한공연을 통해 발레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창작발레로서 한국에 보여 준 최초의 공연이었다. 서구 무용인들에 의해 서구 무용이 열풍을 일으킨 즈음 한국의 스타, 배우자가 등장하였다. 1928년 배우자는 '배구자연구소'를 설립, 제 1회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최초 토슈즈를 신은 무용수로서 서구발레 공연을 하였다. 1931년 러시아 발레리나 엘리야나는 경성 희락관에서 <빈사의 백조>, <인형>, <관조>, <낭만> 등의 내용으로 내한공연을 하였다. 이는 전통 고전발레가 소개되었다는 것과 발레 무용극의 등장, 무대화된 서구 민속무용 등 고전 발레 테크닉을 사용한 공연으로 러시아 정통발레가 러시아 발레리나에 의해 처음 한국에서 공연된 것으로 남아있다. 이렇듯 신무용이 뿌리내린 국내 무용계에 외국 무용수들에 의해 발레가 소개되고 공연 되고 있을 즈음 1949년 한국의 발레무용수 한동인과 정지수가 등장하게 되고 그들로 인해 한국에 정통 발레가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앞서 배우자로부터 발레가 선보여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녀의 발레는 창작 발레인 반면 한동인과 정지수의 발레는 러시아인을 통해 전달된 정통 발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무용과의 구분이 없었던 국내 발레가 신무용과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조선무용예술협회가 조직되면서였다. 이듬해 10월 한동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발레단인 서울발레단을 조직하고 창단공연을 가졌다. 6·25전쟁으로 많은 발레인들은 피살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월북을 하였지만 몇몇 발레인들은 꾸준한 활동을 하였다. 1950년 진수방은 시공관에서 고전발레인 <호두까기 인형>과 <카르멘> 등의 공연을 하였다. 1951년에는 송범, 이인범, 주리 등의 무용수들이 동아극장에서 클래식 발레인 <왕자와 백조>를 무대에 올리고 약 10차례의 공연을 하였다. 이후 1953년 이인범에 의해 '서울발레단'이 재건되고 1954년에는 진수방을 통해 '한국발레예술무용단'이 조직되었다. 같은 해 송범은 '코리아발레단'을 조직하고 1956년에는 김순성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가협회'가 창립되었다. 같은 해 임성남은 '임성남발레단'을, 조광은 '조광발레단'을 발족시켰고, 1960년에는 임성남, 송범, 주리, 조광등을 포함한 53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한국발레단'이 창단되었다. 그 후 임성남을 초대단장으로 1962년 국립무용단이 창단되고 1947년

국립무용단에서 국립발레단이 독립하게 된다. 1976년에는 조선대 무용과 중심으로 ‘박금자무용단’이 전문무용단으로 구색을 갖추갈 즈음 광주시 전석홍 시장의 결단으로 ‘광주시립무용단’으로 흡수되며 창단되어 광주발레의 특유 체계를 갖추게 되고 지방 유일의 발레단으로 자리 잡았다. 1984년에는 국내 최초의 민간 발레단체로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되고 1995년에는 김인희와 제임스전을 중심으로 ‘서울발레시어터’가 창단되었다. 이후 민간직업발레단으로 발레리노 이원국을 중심으로 ‘이원국발레단’, 2005년 단장 김길용을 중심으로 ‘와이즈발레단’, 서미숙을 중심으로 ‘Seo발레단’과 ‘김옥련발레단’ 등이 창단되었고 현재는 국립발레단 외 민간직업발레단들 그리고 전국 대학의 무용과 중심의 대학발레단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한국발레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이렇듯 한국발레의 정착은 서구의 무용을 통해 소개되어 한국 발레계의 1세대인 한동인, 정지수, 진수방, 임성남 등의 선구자들로부터 시작되어 발레가 정착되고 현재 국내 여러 발레단체와 발레인들로 인해 한국 발레는 그 명성을 전 세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3. 국내 기독교 발레의 역사

국내 발레계 안에서 선교발레의 영역이 개척된 것은 조승미 발레단에 의해서이다. 조승미 발레단의 조승미 단장은 80년대 당시 한국 발레계의 생소한 개념이었던 선교발레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조승미는 1980년 ‘선교발레’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발레공연을 하였다. 그는 선교를 무용예술로 응용하여 선교발레의 선교자로서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의 안무작은 <나의 간증>, <십자가 앞에서>, <주은혜 놀라와>, <영광>, <에스터>, <삼손과 데릴라> 등 단막부터 전막까지 그 레파토리는 다양했다.

조승미에 의해 선교발레가 국내에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나갈 즈음 국립발레단의 주요 단원이었던 김명순, 한제선, 강숙현 등이 호산나선교발레단을 창단하였고 수많은 기독교 집회에서 선교발레로 그 사역에 동참하며 1987년 <샤론의 꽃 예수>라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호산나발레단의 단원이었던 김혜영이 샤론발레단, 국립발레단 단원이던 진수인이 L Ballet Mission을 만들어 기독교 선교 사역에 선교발레를 통해 동참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워십댄스로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1993년 울동대학교, 1994년 헵시바 선교회, 1996년 낮은 울타리 문화예술단, 1997 여호수아 워십댄스 신학원, 두란노 문화센터 등의 전문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무용선교위원회가 발족되어 본격적으로 선교무용시대가 전개되었다. 1994년 형성된 선교무용위원회에는 회장에 조승미, 부회장은 박서옥과 진수인, 상임총무 황규자, 발레분과장 박경숙 등으로 조직되면서 많은 무용수가 참여·활동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무용선교위원회의 대공연이 있었다. 이 공연은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재즈 등의 기독교 무용인들이 선교무용을 통한 연합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헌신하였다. 이후 무용선교위원회는 5회에 걸친 선교무용페스티벌과 2차례의 강습회를 개최하며 무용지도와 무용을 통한 선교사역에 헌신하였다.

2000년대에는 문화선교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면서 선교에 발레를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는 진수인의 ‘L 발레단’, 박경숙의 ‘프리미에르발레단’, 박순자의 ‘샤롬발레단’, 김계숙의 ‘조승미 발레단’이 활동하였고 대형교회들의 지원으로 선교발레단의 활동이 국내외 해외 선교공연사역으로까지 확장하였다. 또한 2000년대에는 기독교 무용이 다양한 선교무용작품과 창작을 이루면서 그 영역이 다양해졌고 갓피플(godpeople)이라는 기독교 사이트에서는 처음으로 ‘CCD(Christian Culture Dance)’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워십댄스 페스티벌과 경연대회, 기독교 무용 콘쿨 및 세미나, CCD경연대회와 연합 공연 등을 통해 기독교 무용의 발전을 이어갔으며 무용을 새로운 기독교 문화로 소개하였다.

2000년대에는 대학 부설로 기독교 무용이 교육되었는데 숙명여대 평생교육원 선교무용반, 한양대 사회교육원 기독교 무용학부, 서울 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등 선교무용에 대한 교육활동을 하였다. 이외에 전국 교회에서의 경배무용단체 혹은 교회에서의 예배의 일부로 선교무용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 기독교 발레는 조승미 발레단에 의해 개척되어 그 길을 열게 되고 그 길에 많은 단체들이 동역하며 국내 기독교 발레의 기반을 다져가며 국내외 여러 곳에서 복음 전파와 선교사역에 발레로 섬기며 그 사역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국내 기독교 발레는 주로 교회 내 예배와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사역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고, 선교발레단에 운영을 위한 지원이 없어 단원들의 자비량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다. 또한 선교발레를 위한 후배양성과 작품개발이 미흡하여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하였던 선교발레단에 비해 현재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국내 기독교 발레를 위한 단체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국내에 개설된 있는 기독교 발레단체는 <표1>과 같다.

국내 기독교 발레단체	국내 기독교 발레단의 주요 내용
조승미 발레단	1980년 창단 국내 선교 발레의 영역 개척
호산나 선교 발레단	1980년 창단 한제선을 중심으로 국립발레단 출신 김제선, 강숙현등의 무용수들로 구성
L Ballet Mission	1994년 국립발레단 주역무용수와 지도위원 출신의 진수인 단장을 중심으로 창단 온누리 교회 문화사역팀으로 국내 외 해외 사역에서 복음전파를 함
샤론선교발레단	호산나선교발레단 출신인 김혜영을 중심으로 영락교회에서 기독교 발레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발레단
하사담 선교 발레단	1985년 박경숙을 중심으로 창단 두란노 경배와 찬양집회, 정신질환자 요양원 및 97 민족복음화 대성회 공연 등의 선교 사역 감당
이화발레앙상블	1992년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 신은경교수에 의해 창단 대표작 <메시아>를 통해 현재 활동 중
프뉴마선교발레단	조승미 교수의 제자 김형민을 중심으로 2006년 창단 대표작 <新비아돌로로사>를 통해 현재 활동 중

<표 1> 국내 기독교 발레단의 현황

III. 국내 기독교 주요 발레단의 현황

1. 조승미 발레단

국내 기독교 문화의 한 획을 그은 (사)조승미 발레단은 국내 발레 안에 선교발레의 문을 연 단체이다. 조승미 발레단은 1980년 3월 한양대 조승미 교수에 의해 창단되어 1996년 전문 발레단으로 재창단 되었다. 조승미 발레단은 국내 외 해외 공연을 통해 한국 발레의 해외 교류에 큰 공적을 남기고 더 불어 선교발레를 통해 복음 전파까지 힘쓰며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특히 조승미 발레단은 클래식 발레, 창작발레, 선교발레로 발레예술의 양적·질적의 모든 완벽한 구현과 창조적 예술성을 갖춘 단체이다. 1986년 일본에서 열린 제 3회 '국제 창작 무용 콩쿨'에서 작품<진실한 나의 영혼>을 통해 특별상 수상, 1990년 제 12회 '서울무용제'에서 작품<데니의 하루>를 통해 안무상과 연기상을 그리고 같은 해 '동경 안무 콩쿨'에서 작품<나>를 통해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해외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조승미 발레의 기독교 발레 작품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작품<모세의 기적>, <삼손과 데릴라>, <에스터>, <꿈과 믿음의 사람 요셉>등 성경 속 인물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세워 그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 속 인물들과 이야기들을 발레로 풀어가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삼손과 데릴라>는 성경 속 인물인 '삼손'의 이야기를 세계 최초로 발레화한 작품으로 92년 초 연된 후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아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순회공연까지 다녀온 작품이다. 이 작품은 총 2막 8장의 전막공연으로 화려한 테크닉과 웅장한 스토리 전개와 발레작품에서 시도하지 않은 무대장치와 무너지는 효과를 주는 등 새로운 창작의 요소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수준 높고 예술성 짙은 작품으로 찬사를 받았다. 또한 조승미 발레단에서 국내 최초의 청각장애 발레리나인 강진희씨가 '삼손과 데릴라'의 주역을 맡아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선사하였다.

조승미 발레단은 장애인을 위한 공연, 교도소 및 군부대 위문공연, 불우이웃 돕기 자선공연 등 발레를 통해 사랑을 실천을 몸소 보여주며 몸으로 사랑을 전하는 단체로 무용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조승미 단장은 2001년 암투병 중 세상을 떠났으며 조승미 단장의 뒤를 이어 그의 제자인 김계숙 단장이 발레단을 이어서 이끌어 가고 있다. 조승미 발레단의 연도별 활동내역은 <표2>와 같다.

년도	주요 활동 연혁 및 작품명
1980년	조승미 발레단 창단
1982년	홀트일산원 장애자를 위한 조승미발레 앙콜공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984년	불우 이웃 돕기 자선공연Ⅱ <세종문화회관>
1986년	사이다마데 제3회 국제무용콩쿨 참가 <일본문예회관>
1987년	불우 이웃 돕기 자선공연Ⅲ <국립극장>
1989년	문예진흥원 창작활성화 지원작 '모세의 기적' <세종문화회관 기획 분수대 공연> 앙콜공연 '모세의 기적'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89발레 그랜드 페스티벌 ' <호암아트홀>
1990년	장애인 예술제 <세종문화회관>
1992년	선교한국 초청공연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 '삼손과 데릴라' 세계 초연 <세종문화회관>

1993년	‘삼손과 데릴라’ 앵콜 공연 로고스 예술 선교단 초청공연 <부산 KBS홀>
1994년	기독교 21세기 운동 무용선교위원회 창립예배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1995년	기독교 방송 개국 축하공연 <임마누엘 교회>
1996년	대전교도소 위문선교공연 <대전교도소> 제 4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가스펠 콘서트’ <롯데월드 호반무대>
1997년	제6회 문화축제 열린 찬양제 <햇빛회관 희락성전> 제4회무용선교 페스티벌 <서울 교육문화회관>
1998년	장애아동 교육시설 기금마련 자선공연 <포천 승진강당 콘서트홀>
1999년	헤뜨는 집 건립을 위한 자선공연 <포천 실내 체육관>
2000년	제20회 장애인의 날 기념 조승미 발레단 초청공연 <포천구민회관> 달리다곰 찬양 예술 선교의 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삼손과 데릴라’ <국립극장>
2001년	한남대, 세종대, 성결대 채플공연 영광교회 초청공연 삼성 성결교회 초청공연
2001년	찬양예술선교의 밤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2001 세계 성령 복음화 대성회 문화축제 초청공연 <잠실실내체육관>
2002	대전 YMT초청공연 <대전복음교회> 제10회 한미 청소년 영어선교캠프 초청공연 <목원대학교> 달리다곰 찬양 선교의 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섬기는 사람들 자선 음악회 <남양주시청 대강당>
2003년	크리스천 페스티벌 제 2회 춤은 하나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제2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초청공연 <포천군민회관> 워십댄스 페스티벌 <글로리아 홀> ‘꿈과 믿음의 사람 요셉’ <경기도문화예술회관>
2004년	‘꿈과 믿음의 사람 요셉’ <서울 교육문화회관>
2005년	‘꿈과 믿음의 사람 요셉’ <서울 교육문화회관>

<표 2> 조승미 발레단의 기독교 발레 주요 활동 연혁

2. 호산나 선교 발레단

호산나 선교발레단은 1980년 한제선을 중심으로 국립발레단 출신 김제선, 강숙현등의 무용수들로 구성, 창단되었으며 김명순을 대표로 하여 선교무용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기독교 문화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역에 동참하였다. 교도소, 군부대, 지하철 공연에 까지 선교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 공연을 하며 대표작으로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시온의 찬미>,<사탄의 꽃> 등이 있으며 호산나 선교 발레단의 연도별 활동내역은 <표3>과 같다.

년도	주요 활동 연혁 및 작품명
1980년	호산나 선교 발레단 창단
1989년	89발레 그랜드 페스티벌 '어느길? <호암아트홀>
2003년	제2회 춤은 하나로 공연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표 3> 호산나 선교 발레단의 기독교 발레 주요 활동 연혁

3. L Ballet Mission

1994년 국립발레단 주역무용수와 지도위원 출신의 진수인 단장을 중심으로 창단한 L Ballet Mission은 Love(사랑), Light(빛), Life(생명)의 하나님을 뜻하며, 'L'의 의미는 LORD, 즉 주님을 나타내며 발레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단체이다. L Ballet Mission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닌 무용을 전공한 무용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발레교육이 발전과 더불어 선교무용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에 힘쓰고 있다.

L Ballet Mission은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를 통해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온누리 교회의 문화 선교 사역의 큰 역할을 하였다. 주로 예배와 선교집회의 기독교발레로 공연되어 왔고 그 외 복음 전파가 필요한 곳이나 이웃들을 위해 공연하였다.

L Ballet Mission의 사역은 주로 온누리 교회의 선교사역과 함께 하였는데 교회 내 예배무용으로, 교도소, 병원, 요양원 등의 국내 복음 사역 외 일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예루살렘 평화행진 2005' 등 복음이 필요한 곳에 발레로 사역하며 아름다움과 사랑을 실천하였다.

대표작으로는 <Fiesta>, <생명 되신 주여>, <레퀴엠>, <시편 150편>, <Israel Song>등이 있고 바흐의 음악을 형상화한 발레 <축제의 삶>은 제5회 한국발레협회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며 발레 안무의 새로운 시도는 기독교문화가 일반문화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선입견을 깨뜨리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L Ballet Mission의 연도별 활동내역은 <표 4>와 같다.

년도	주요 활동 연혁 및 작품명
1994년	L Ballet Mission 창단
1995년	우크라이나 한국문화의 날 공연 한국제자들 선교회(KDFC) 공연 제 5회 한국무용선교 무용 9인전 제 2회 무용선교 페스티벌
1996년	제 3회 무용선교 페스티벌
1997년	제 1회 L Ballet Mission Workshop(대학, 일반부) DFC 영원한 찬양 17주년 기념 독거노인돕기 하남시 공연
1998년	제 2회 L Ballet Mission Workshop(중, 고등부) 온누리교회 열린예배 - 빛과 어둠 온누리교회 사역축제 - 성령간구와 성령충만 온누리교회 부활절 전도집회 - 메시아 Jesus Festival - 발레로 사랑과 생명을 <FDC강릉대 문화관>

	<p>온누리교회 열린예배 - 기쁨 온누리교회 열린예배 최덕신 콘서트 - 주를 찬양 제 3회 L Ballet Mission Workshop(대학, 일반부) 온누리교회 비전 - 일하러가세 '춤으로 사랑과 생명을' 원주 DFC 공연 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열린예배 -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온누리교회 예수공동체 축제 - 예수님의 비전, 예수 공동체 온누리교회 열린예배 - 우리는 주님의 증인 온누리교회 성탄절 전도집회</p>
1999년	<p>제 4회 L Ballet Mission Workshop(중, 고등부) 온누리교회 열린예배 평화를 심는 사람 - 빛과 어둠 온누리교회 OMC -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 온누리교회 OMC - 성령과 환상 온누리교회 부활절 전도집회 - 증인들의 고백 학 발레단 찬조출연 '생명되신 주', '시편 150편' 온누리교회 - 주기도문 제 5회 L Ballet Mission Workshop(대학, 일반부) 온누리교회 99비전과 리더십 축제 - 성령에 사로잡힌 지도자 온누리교회 99비전과 리더십 축제 - 세상을 품는 지도자 온누리교회 새신자예배 - 주님의 삶과 피 햇볕회관 - 주님의 시간에 제 1회 L 발레단 정기공연 <온누리교회> 농아선교단 찬조출연 <과주 시민회관> 농아선교단 찬조출연 <서울 응암교회> L 발레단 초청 공연 <제주도 사랑의 학교> 온누리교회 - L발레와 크리스마스를 샤론발레단 정기공연 찬조출연 '성령이여 임하소서' 에덴교회 주최 찬조출연 '불우이웃을 위한 밤' 온누리교회 - 예수님의 탄생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사역</p>
2000년	<p>농아선교단 공연 찬조출연 <주사랑 농아예술선교단> 2000년 한국장로교 강북지역대회 50주년 기념관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사역 온누리교회 인터넷 TV개국 기념 '주의 이름 높이며' 'Ballet가 바흐를 춤춘다면' - 'Fiesta' <국립극장 대극장> 온누리교회 성탄절 전도집회 삼성의료원 위문공연</p>
2001년	<p>온누리교회 여성특별집회 '당신은 eaaer입니다.' 제 8회 L Ballet Mission Workshop(중, 고등부) 온누리교회 새신자예배 -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안양제일교회 71주년 기념집회 찬조출연 <안양실내체육관></p>
2002년	<p>온누리교회 집회 <잠실실내체육관></p>

2003년	크리스마스 예배 공연
2004년	양재 온누리교회 부활절 공연 'Love Touch' 양재 온누리교회 공연 여의도 국민은행 공연 '가족사진' 구리시청 초청공연 서빙고 온누리교회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연 서빙고 온누리교회 - 크리스마스 예배 공연
2005년	양재동 온누리교회 공연 부천 온누리교회 공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연 양재 햇빛회관 사역 'Up Grade' 안성 기독교 축제 사역 크리스마스 예배공연
2006년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 - 순복음교회 사역 끝없는 도전 집회 사역 동경 오사카 CGN TV 개국 축하공연
2008년	2008 다윗의 장막 위십컨퍼런스 폴월버 목사 초청 집회 <건국대 새천년기념관>
2010년	제 2회 L Ballet Mission 정기공연 <성암아트홀>

<표 4> L Ballet Mission의 기독교 발레 주요 활동 연혁

4. 샤론선교발레단

샤론선교발레단은 영락교회에서 기독교 발레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발레단으로, 국내외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든 곳에 발레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였다. 샤론선교발레단은 호산나선교발레단 출신인 김혜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기독교 집회에서 선교발레 작품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였다.

샤론선교발레단의 연도별 활동내역은 <표 5>와 같다.

년도	주요 활동 연혁 및 작품명
1999년	샤론발레단 정기공연
2000년	LA 나성영락교회 초청공연 뉴저지 안디옥교회 초청공연 허드슨장로교회 초청공연 뉴욕목양교회 초청공연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초청공연
2003년	샤론발레단 제2회 여름무용아카데미 <영락교회>
2004년	선린교회 초청공연
2012년	군선교 공연

<표 5> 샤론선교발레단의 기독교 발레 주요 활동 연혁

5. 하사딤선교발레단

1985년 공주대학교 박경숙 발레단을 모체로 출발하여, 수십 차례 공연을 통해 창작발레를 발표하였고 1997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발레를 통해 복음을 증거 하기위해 ‘하사딴’이란 이름으로 창단된 단체이다. ‘하사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팀이란 뜻으로 <나의 영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흥> 등 고전발레를 중심으로 현대무용, 종합무용 등 다양한 발레를 테마형식으로 전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발레로 증거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두란노 경배와 찬양집회, 정신질환자 요양원 및 97 민족복음화 대성회 공연 등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사딴선교발레단의 연도별 활동내역을 <표 6>과 같다.

년도	주요 활동 연혁 및 작품명
1998년	하사딴선교발레단 정기공연 <대전시민회관 대강당>
2000년	갈보리장로교회 초청공연
2004년	남부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초청공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선교회 주최 제 18회 열린찬양제 사역 <롯데월드 호반무대>
2005년	교회의 날 ‘여는 예배’ 출연 <연동교회>
2014년	2014 직장선교연합예배 초청공연 <강원도 새중앙침례교회>

<표 6> 하사딴선교발레단의 기독교 발레 주요 활동 연혁

6. 이화발레앙상블

신은경 교수는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이자 발레로 복음 전하는 안무가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이화발레 앙상블의 이화발레앙상블은 1992년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 신은경교수에 의해 창단되었다. 예술감독 겸 안무를 맡고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메시아 예수>, <옴>, <돌아온 아들> 등이 있다.

이화발레앙상블은 ‘이화여대 채플’로 인해 창단되었다. 졸업 전 일정한 채플 학점을 이수해야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채플시간은 매우 부담스러운 시간이었다. 채플을 지루하고 부담스럽게 여긴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채플발레였다. 한 학기 중 약 일주일을 발레를 통해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는 예배로 진행하였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그 발레 작품들이 하나둘씩 쌓여 지금의 작품들로 남게 되어 이화발레앙상블이 창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화발레앙상블의 작품은 단순히 성경말씀을 발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적 메시지와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그리고 감동과 도전을 준다는 높은 평을 받고 있다.

여러 작품 중 이화발레앙상블을 대표하는 작품은 바로 <메시아>이다. 이 작품은 이화발레앙상블 작품 중 제일 스케일이 큰 작품으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토대로 환상적인 낭만발레의 요소와 현대발레의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시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총 2막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막은 예언, 강림, 갈릴리 바닷가, 사마리아 우물가, 유다의 배반에 이르는 청년예수가 로마군에게 체포되기 전까지의 삶을 그리며 제2막은 빌라도의 재판과 심문, 예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하기까지의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풀어낸다.

이 작품은 2003년 초연 이후 국내외 여러 곳에서 공연되었으며, 제 18회 기독교 문화대상을 수상하고 2014 올해의 최우수 예술작품 상을 받으며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이화발레앙상블은 정통클래식발레와 모던발레, 나아가 선교발레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켜 발레를 통해 국내외 여러 곳에 발레의 대중화와 활성화, 그리고 복음 전파까지 기여하고 있으며 이화발레앙상

블의 연도별 활동내역은 <표 7>과 같다.

년도	주요 활동 연혁 및 작품명
1992년	이화발레앙상블 창단
2003년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초연
2004년	제18회 기독교문화대상 수상 -작품<메시아>
2005년	캄보디아 선교 공연
2006년	이화발레앙상블 미주 공연
2007년	작품 '메시아'
2008년	캄보디아 선교 공연
2009년-2012년	작품 '메시아' / '2012 신은경 이화발레 앙상블' <이화여대 삼성홀>
2013년	작품 '메시아' /미국 남가주동창회 초청 공연 <월서 이벨 극장>
2014년-2015년	'사랑의 음악회' 초청공연
2016년	작품 '메시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표 7> 이화발레앙상블의 기독교 발레 주요 활동 연혁

7. 프뉴마선교발레단

발레라는 전문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8절의 말씀을 받아 2006년 창단된 프뉴마발레단은 국내외 공연과 교육을 통해 어려운 지역을 다니며 여러 기간과 협력하고 있다. '프뉴마'는 헬라어로 '성령'이란 뜻이며, 발레를 통해 복음 사역을 사명으로 삼은 '춤추는 선교사'들이다.

프뉴마발레단의 단장은 김형민으로 그는 조승미교수의 제자이다. 레파토리로는 제30회 서울무용제 참가작 <종이꽃>, 성경 속 인물인 '느헤미야' 선지자를 표현한 작품인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낸 작품 <구속> 그리고 성경의 십자가 사건을 전개한 작품 <新비아돌로로사>가 있다. 이들 중 프뉴마발레단의 대표작은 <新비아돌로로사>로, 단장 김형민이 안무하였고 십자가 사건을 베드로와 유다의 배반을 중심으로 전개시켰고 클래식과 CCM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풍성한 표현을 준 작품이다.

김형민 단장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표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앞으로 세상의 감동과 위로,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로써 최선과 최상의 무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뉴마발레단은 발레라는 예술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자 현재 국내 기독교 발레의 맥을 이려가고 있다. 프뉴마선교발레단의 연도별 활동 내역은 <표 8>과 같다.

년도	주요 활동 연혁 및 작품명
2006년	창단 장애인 예술선교회 주최 열린찬양제 출연 <롯데월드> 달리다굼선교회 "장애인을 위한 여름캠프" 초청사역 예향 "JUMP" 집회 초청사역 <분당열린하늘문교회> "아사모" 집회 초청사역 <한국중앙교회> "수화뮤직컬단" 초청사역 <창동역 문화마당> 달리다굼 "찬양예술 선교의밤" <100주년 기념관> 예향 "JUMP" 집회 <분당 열린하늘문교회>

	<p>"사랑의 예술제" <오륜교회> "복음송 페스티벌" <리더스클럽></p>
2007년	<p>새신자 전도집회 <이원감리교회> 제3세계 선교를 위한 연합성회 <한마음 교회> "JUMP집회" <성덕 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 "십자가의길" <전농 감리교회> 부활절예배 "십자가의 길" <천안제일 감리교회> 프뉴마 1주년 감사전도집회 <제일 침례교회> 중국인 예배 <안산제일교회> 중국 단기선교 <위해, 연대, 북경> 소록도 무용예배 <소록도 대강당> 외국인초청예수사랑 큰 잔치 <연세중앙교회> 성탄절사역 <번엘 유치원> 명지대학교 기독CEO예배 <엠버서더 호텔> 엘사다이 오페라단 초청사역 <롯데호텔></p>
2008년	<p>대전 성남 고등학교 신입생환영회 <대전 복음 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옥천 관성 회관> 연세중앙 교회 문화예술축제 <연세중앙교회> 달리다꿈 선교회 20주년 기념 행사 <국군 중앙교회> 열린 찬양제 한국 장애인 예술 선교회 <롯데월드 어드벤처 중앙무대> 제4회 한국 기독교 무용 안무가전 <한성대 대강당> 소록도 자원 봉사 <소록도 대강당> 한국기독교 무용 협회 10주년 기념 공연 <양재 교육문화 회관> 한국 기독 무용 예술원 정기공연 창조출연 <양재 교육문화 회관> 기독교 감리교 시온 교회 창립 기념 예배 <시온교회> KONIS 국제 유치원 사역 <konis 국제 유치원></p>
2009년	<p>중국 신학교 졸업식 사역 <안성 중국 신학원> 엘림선교회 중국인 전도집회 사역 <인천제일교회 선교교육반> 장애인 선교 Expo 오프닝 세레모니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 강릉 좋은침례교회 부활절 감사예배 <강릉 좋은침례교회> 정릉교회 성(聖)금요일 기념 예배 <정릉교회> 강화도 감리교 연합 부활절 감사예배 <강화 중앙교회>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채플 부활절 감사예배 <호서대 천안캠퍼스>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채플 부활절 감사예배 <명지대 용인캠퍼스> 롯데월드 열린찬양제 <롯데월드 가든스케이프> 한국기독교무용협회(CDFK) 댄스 페스티벌 <한성대 대강당> 아.사.모 주최 소록도 자원봉사자 위로 사역 <소록도 대강당> 대만 카오슝지역 단기선교 <예만국제선교교회 연합> 서울 무용제 자유참가부문 출전 <아르코 대극장>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새신자초청집회 사역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안양제일교회 초청전도집회 사역 <안양제일교회> 온누리교회 성탄 연합 칸타타 사역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 인터콥 2010청년대학생 선교캠프 BTJ 페스티벌 <호서대 아산캠퍼스></p>

2010년	<p>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 특순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 강릉 새능력교회 입당예배 축하공연 <강릉 새능력교회> CTSS(중국신학원) 연합 중국인 전도집회 <안성 열린교회> 온누리교회 대학부 하늘공동체 부활절예배 특순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 두란노홀> 연세중앙교회 유아유치부 전도집회 오프닝 <연세중앙교회 문화홀> 한국기독교무용협회(CDFK) 댄스 페스티벌 <한성대 대강당> 예수사랑교회 열린예배 무용예배 <예수사랑교회> 재한 중국인 신학생 연합 수련회 특순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 카스피-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름단기선교 <카스피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안산 권능교회 전교인수련회 특순 <대전 성주산 수양관> 대만 카오슝지역 단기선교 <대만 국제선교교회연합> 성결대학교 예수축제 채플사역 <안양 성결대학교> 예수사랑교회 열린예배 단기선교사역보고 예배 <예수사랑교회 본당> 태광교회 '예수사랑큰잔치' 특순 <김포 태광성결교회 본당> 목포시민교회 본예배 특순 <목포그리스도의교회 본당>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열린예배 특순 평화장로교회 평화페스티벌 특순 <계룡시 평화장로교회 본관> 성화교회 선교기념예배 특순 <성화교회 본당> 분당 차병원 라파신우회 불우이웃돕기 행사 특순 <분당 차병원 지하 대강당></p>
2011년	<p>수도방위사령부 충성교회 열린예배 사역 <군부대-사당동 수방사 충성교회> 대구 성일교회 열린예배 사역 <대구성일교회> 강릉 '냇지않는 배낭' 주최 HUG 청소년문화축제 <강릉장로교회> 어린이전도협회 강릉지회 '어린이꽃대잔치' 동해사역 <동해문화예술회관 야외극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대회 오프닝+특무 사역 <부산기장체육관> 천안 갈릴리교회 어린이 전도집회 사역 <천안 갈릴리 교회> 송내 사랑의 교회 맥추감사절예배 <송내 사랑의 교회> 국내 아웃리치 - 강릉지역(관동성결교회) <관동성결교회> 한국 달리다굼 장애인선교회 사랑의 캠프 사역 <경기도 불무리신병교육대> 아.사.모 소록도 봉사자 위로 사역 <소록도 대강당> 인천 서창중앙성결교회 '통나무숲속음악회' 사역 <인천 서창동 중앙교회> 중국인 유학생 리더십 캠프 오프닝 특순 <경북 청소년수련센터> 논현주안장로교회 새신자초청주일 사역 <인천 논현주안 장로교회> 월간플레르 창간15주년 기념공연 '나빌레라' 초청사역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 힐피플 공동체 성탄감사예배 초청 사역 <나우리 감리교회></p>
2012년	<p>CHA의과대학 채플사역 경북 영주 새길교회 사역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해원학교 사역 동해 어린이전도협회 기독교 장로회 연합행사 힐피플 연합 야유회 <남중전원교회> CDFK 크리스찬무용페스티벌</p>

	<p>일산 주님의 교회 대구 하늘샘 교회 강릉 아웃리치 <강릉 관동성결교회> 달리다꿈 선교회 사역 성북중앙교회 사역 꿈꾸는 교회 인천 논현 주안교회 MOSTA사역 장충교회 동송교회 동현교회 수원화산교회 분당 차병원 사역 선한 이웃병원 일산 오병이어 교회 CTSS 졸업식 사역 인터콥 여성&남성 시니어 선교캠프 페스티벌</p>
2013	<p>새신자 초청집회 성북중앙교회 새신자 초청집회 꿈꾸는 교회 새신자 초청집회 푸른꿈 열방교회 새신자 초청집회 논현주안장로교회 통나무 숲속음악회 <서창 중앙교회 잔디 마당> 블레싱 진도 sea 뮤직페스티벌 <진도군청> 금촌성서교회 사역 한국장애인선교단체 총연합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본당> 새신자 초청집회 동송교회 부친 혜린교회 새생명 축제 종암교회 여성중창 정기 발표회 및 전도집회 한영교회 장애인 초청음악회 인터콥 어린이 선교캠프 페스티벌 <어린이 캠프장막></p>
2014년	<p>달리다꿈 사랑의 캠프 사역 의정부 호동초등학교 사역 '새비아돌로로사' 시리아난민돕기 공연 CDFK 15주년 기념공연 <이화여대 ECC삼성홀></p>
2015년	<p>'새비아돌로로사' 시리아난민돕기 공연 프뉴마발레단 단기선교 '시리아 난민 사역' 대만 아웃리치</p>
2016년	<p>대구 쥬빌리 통일콘서트 흥대거리버스킹 프뉴마예술예배 <성북중앙교회 비전채플실> 중국 아웃리치</p>
2017년	<p>'새비아돌로로사' 공연 <대학로 문화공간 엘림></p>

<표 8> 프뉴마선교발레단의 기독교 발레 주요 활동 연혁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기독교 발레의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기독교 발레의 시작과 역사, 공연된 레파토리들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 기독교발레의 문을 연 조승미 발레단에서부터 그 뒤를 이어 기독교 발레 사역을 한 국내 주요 발레단은 총 7팀이었으며 이 중 지금까지 기독교발레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는 ‘하사딴 선교발레단’, ‘이화발레앙상블’, ‘프뉴마선교발레단’이었다. 이들은 교회 내 예배사역과 기독교 발레를 필요로 국내외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화발레앙상블과 프뉴마선교발레단은 단체가 갖고 있는 전막형식의 레파토리(‘메시아’, ‘新비아들로로사’ 등)를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기독교 발레단들의 공연 작품들은 주로 예배를 위한 무용으로 단막형식의 짧은 레파토리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막형식을 갖춘 무용단은 조승미 발레단(삼손과 데릴라, 꿈과 믿음의 사람 요셉, 에스터), 이화발레앙상블(메시아), 프뉴마선교발레단(新비아들로로사)가 있었다.

셋째, 과거에는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과 같은 대극장에서 종교적 내용을 담은 작품들이 공연되었으나 현재는 국내의 공연극장 조건상 종교적 내용에 해당하는 공연은 공연될 수 없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기독교 발레 작품의 대극장 공연 횟수는 감소하였으며 점점 예배무용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었다.

넷째, 국내 기독교 발레 단체들의 지속적인 후세대 계승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단체들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황분석에 따라 추후 국내 기독교 발레의 활동이 중단된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여 기독교 발레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독교 창작 발레 레파토리의 꾸준한 개발 및 창작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자역. (2007). 『발레의 탄생』.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 서정자 (1997). 『서양무용예술사』. 서울: 대한미디어
- 이지연 (2006).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제선 (2014). “선교발레를 통한 기독교선교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 김지연 (2006). “한국 발레의 도입과정 과 광복 후 초창기 한국발레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

